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 설



강 오 식 (자유기고가)

우 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은 본래 조상 숭배와 효(孝)의 사상에 기반을 두고 있다. 먼저 간 조상신과 자손이 함께 하는 아주 신성한 시간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도시 생활과 산업사회라는 굴레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현대의 설날은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곧 도시 생활과 산업사회에서 오는 긴장감과 강박감에서 일시적이나마 해방될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라는 의미도 함께 지니게 된 것이다.

설날은 평소의 이기적인 세속 생활을 떠나서 조상과 함께 하며 정신적인 유대감을 굳힐 수 있는 성스러운 시간이다. 또한 국가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설날은 아주 의미 있는 날이다. 국민 대부분이 고향을 찾고, 같은 날 아침 차례를 올리며, 또 새 옷을 즐겨 입는다. 여기에서 우리는 같은 한국 사람이라는, 같은 민족이라는 일체감을 갖게 된다.

설날의 어원에 대해서는 몇 가지 설이 있다. 우선 설날을 '낫설다'라는 말의 어근인 '설'에서 그 어원을 찾는다. 그래서 설날은 '새해에 대한 낫설음'이라는 의미와 '아직 익숙하지 않은 날'이란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다음으로 설날은 '선날' 즉 개시(開始)라는 뜻의 '선다'라는 말에서 '새해 새날이 시작되는 날'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선날'이 시간이 흐르면서 연음화되어 설날로 와전되었다는 것이다. 또 설날을 '삼가다(謹慎)' 또는 '조심하여 가만히 있다'라는 뜻의 옛말인 '썰다'에서 그 어원을 찾기도 한다. 이는 설날을 한자어로 신일(愼日)이라고 표현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설날이 언제부터 우리 민족 최대 명절로 여겨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 있다. 「수서(隨書)」를 비롯한 중국의 사서들에는 신라인들이 원일(元日)의 아침에 서로 하례하며 왕이 군신을 모아 잔치를 베풀고, 이 날 일월신을 배례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 「삼국사기」〈제사〉편에는 백제 고이왕 5년(238) 정월에 천지신명께 제사를 지냈으며, 책계왕 2년(287) 정월에는 시조 동명왕 사당에 배알하였다고 한다. 이때부터 정월에 조상에게 제사를 지냈다는 것으로 보아 오늘날 설날과의 유사성을 짐작할 수 있다.

신라에서는 제36대 해공왕(765) 때에 오묘(五廟)를 제정하고 1년에 6회씩 성대하고도 깨끗한 제사를 지냈다고 하는데, 정월 2일과 정월 5일이 여기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이미 이때에 설날의 풍속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에는 설과 정월 대보름, 삼짚날, 팔관회, 한식, 단오, 추석, 중구, 동지를 9대 명절로 삼았으며, 조선시대에는 설날과 한식, 단오, 추석을 4대 명절이라

하였다.

설날의 세시풍속으로는 차례, 세배, 설빔, 덕담, 문안비, 설그림, 복조리 걸기, 야광귀 쫓기, 청참, 옷놀이, 널뛰기, 머리카락 태우기 등 그 종류가 다양하다.

정월 초하룻날 아침에는 남녀노소 모두 일찍 일어나 새 옷을 갈아입는데, 이것을 설빔(歲粧)이라고 한다. 그리고 아침 일찍 각 가정에서는 대청마루나 큰방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제상 뒤에는 병풍을 둘러치고 제상에는 설음식(歲饌)을 갖추어 놓는다. 조상의 신주(神主), 곧 지방(紙榜)은 병풍에 붙이거나 위패일 경우에는 제삿상에 세워 놓고 차례를 지낸다.

차례상을 차리는 방법은 가가례(家禮)라고 하여 지방이나 가문에 따라 다르다. 대체로 차례상 앞 첫째 줄에는 과일을 놓는다. 이때 붉은 과일은 동쪽에, 흰 과일은 서쪽에 놓는다. 둘째 줄에는 채(菜)나 나물류를 놓는데, 포(脯)는 왼편에, 식혜는 오른편에, 또 마른 것은 왼편에, 젓은 것은 오른편에 놓는다.

셋째 줄에는 탕(湯)을 놓는데, 다섯 가지 맛을 갖춘 탕으로 단탕(單湯), 삼탕(三湯), 오탕(五湯), 칠탕(七湯) 등이라 하여 어탕(魚湯)은 동쪽에, 육탕(肉湯)은 서쪽에, 소탕(蔬湯)은 가운데에 놓는다. 넷째 줄에는 적(炙:불에 굽거나 찐 것)과 전(煎:기름에 튀긴 것)으로, 어류는 동쪽에, 육류는 서쪽에 놓는다. 이때 생선의 머리는 동쪽으로 향하게 한다. 다섯째 줄에는 밥과 국인데, 밥은 왼쪽에, 국은 오른쪽에, 또 떡은 오른쪽에, 면(麵)은



왼쪽에 놓는다.

설날 차례를 마친 뒤 조부모·부모에게 절하고 새해 인사를 올리며, 가족끼리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절하는데 이를 세배(歲拜)라 한다. 세배가 끝나면 차례를 지낸 설음식으로 아침 식사를 마친 뒤에 일가 친척과 이웃 어른들을 찾아가서 세배를 드린다. 세배하러 온 사람이 어른일 때에는 술과 음식을 내놓는 것이 관례이나, 아이들에게는 술을 주지 않고 세뱃돈과 떡, 과일 등을 준다.

설날에 일가 친척들과 친구들을 만났을 때 “과세 안녕히 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기를 빕니다.” 등과 같이 그 사람의 신분 또는 장유(長幼)의 차이에 따라 소원하는 일로 덕담(德談)을 나눈다.

설날 이른 아침 또는 선달 그믐날 밤 자정이 지나서, 대나무를 가늘게 쪼개 엮어서 만든 조리를 사서 벽에 걸어두는 풍습이 있는데, 이를 복조리라고 한다. 이러한 풍속은 조리가 쌀을 이는 기구이므로 그해의 행운을 조리로 일어 취한다는 뜻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설날 밤에 야광(夜光)이라는 귀신이 인가에 들어와 사람들의 신을 신어보고 자기 발에 맞으면 신고 간다는 속설이 있는데, 만일 신을 잃어버리면 신 임자는 그 해 운수가 나쁘다고 한다. 아이들과 어른들이 모두 신을 방안에 들여놓는다. 이날 밤에는 모두 불을 끄고 일찍 자는데 야광귀를 막기 위해 대문 위에다 체를 걸어둔다. 이것은 야광귀가 체의 구멍을 세어 보다가 잘못 세어다시 세고, 또 세고 하다가 신을 신어보는 것을 잊어버리고, 새벽닭이 울면 물러가게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설날에 흰 떡국을 끓여 먹는 것은 고대의 태양숭배 신앙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설날은 새해의 첫날이므로 밝음의 표시로 흰색의 떡을 사용한 것이며, 떡국의 떡을 둥글게 하는 것은 태양의 둥근 것을 상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